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66장(통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5:10-22”(구약p.119)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지성소”/인도자

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반드시 피를 가지고, 신발을 벗고, 흰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므로 그 밭에서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찾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궤 속에 들어 있는 세 가지 곧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과 만나 향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

율법은 거룩하며 공의롭고 선합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도 의로운 요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모세의 손에서 성문화된 율법으로 나타났으며 출19:8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동안 그것을 받아야 할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간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외도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지 않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의 용서는 받지 못합니다. 행위로만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복된 대속물을 ‘율법 아래 두심’으로 그를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고 기록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를 온전히 화답하셨습니다. 그는 피조물들의 모든 율법적인 책임을 걸머지시고 인류를 죄악

에서 구원하셨습니다.

2. 만나 향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금으로 된 만나 향아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담겨 있는 만나의 양은 매 사람에게 해당되는 ‘한 오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존된 양은 인간에게 필요한 양이었으나 그것을 담은 금 향아리는 지금 영광중에 계신 그분을 말함이니 곧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신 사람이신 주 예수 안에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양식을 찾을 수 있으며, 감추어진 떡은 뚜껑에 덮힌 율법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처럼 심령이 채움을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3.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을 상징하는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 부활하여 생명을 얻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 또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싹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 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요 제사장 아론은 그의 은총을 말해주는 데 이 둘 모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자도 경멸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으로 그를 변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표적을 본 사실처럼 모세가 다음날 성막에 돌아가 하나님의 부활 능력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백성에게 보인 것은 그 모형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많은 증인 앞에 나타나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놓여진 지팡이로써 하나님의 우편에 감추어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267장(통201)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1. 금주 수요일(2월 16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됩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2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